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5 Issue | Vol. 6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LEDAC, 일반 조세 사면 및 은행 비밀법 개정안을 포함한 44개 우선 법안 확정 —page 1-2
- 8월 공장 출하가격 상승 — page 2-3
- ADB, 2026년 필리핀 성장을 전망 5.7%로 하향...2025년은 5.6% 유지 — page 3-5
- 재정 지출 대폭 삭감 없이는 부가세 10% 인하 불가능 — page 5-6
- SEC, 사외이사 임기 9년 엄격 제한 추진 — page 6-7
- 반도체 산업 협의회, 5개년 인력 개발 계획 발표 — page 7
- 에너지부, 석유·가스 탐사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수당' 제공 — page 7-8

UPCOMING EVENT

- [Nov 24, 2025] KCCP 성탄 파티 — page 8

LEDAC, 일반 조세 사면 및 은행 비밀법 개정안을 포함한 44개 우선 법안 확정

October 01, 2025 | Chloe Mari A. Hufana | BusinessWorld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제20대 의회의 공동 입법 과제(Common Legislative Agenda)로 44개의 우선 법안을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일반 조세 사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물품세, 그리고 은행 예금 비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통신실은 화요일 말라카냥에서 열린 입법·행정발전자문위원회(LEDAC)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입법 우선 과제는 투자 환경 개선, 거버넌스 현대화, 농어민 지원, 사회 서비스 확대, 에너지 안보 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궁은 “거버넌스와 투명성은 여전히 공동 입법 과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과제 목록에는 글로벌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필리핀의 신용평가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에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예금 비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점진적 예산법(Progressive Budgeting bill)과 공무원들에게 은행 비밀 보호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 내 대규모 부패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성명은 이어 “이들 법안은 제안된 조세 사면, 공무원의 은행 비밀 포기 의무화와 같은 공직자 책임성 개혁, 그리고 바랑가이 기본법(Magna Carta for Barangays)과 함께 제도 현대화, 재정 책임성 강화, 그리고 책무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법, 디지털결재법, 온라인 도박 및 선거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입법 등 디지털 경제 관련 조치들도 LEDAC 우선 과제에 포함되었다.

궁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거버넌스와 공공 생활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 입법 과제(44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코코넛 농민 및 산업 신탁기금법 개정안
2. 필리핀 가족복지지원 프로그램(4Ps)법 개정안
3. 수자원부(DWR) 법안
4.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법안
5. 전력산업개혁법(EPIRA) 개정안: 에너지 규제위원회(ERC) 강화 법안
6. 국가 토지 이용법(National Land Use Act)
7.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세 법안
8. 블루 이코노미법(Blue Economy Act)
9. 은행예금 비밀법 개정안
10. 더 나은 현대적 거버넌스를 위한 점진적 예산법(Progressive Budgeting Act)
11. 정보공개법(Right to Information Act)

[Cont. page 2]

LEDAC, 일반 조세 사면 및 은행 비밀법 개정안을 포함한 44개 우선 법안 확정

[Cont. from page 1]

12. 자금세탁방지법(AMLA) 개정안
13. 필리핀 시민등록 및 주요 통계법
14. 보편적 의료보장법(UHC) 개정안
15. 국가 노인 건강센터 설립 법안
16. 위기 상황 개인 지원(AICS) 법안
17. 필리핀 아동 영양식 제공법 개정안
18. 민간 교육기관 학생·교사 정부지원법 개정안
19. 양질의 고등교육 보편적 접근법 개정안
20. 교사 전문화법 개정안
21. 지방정부법(포괄적) 개정안
22. 일반 조세 사면법
23. 상속세 사면 연장법
24. 수산업법 개정안
25. 쌀 관세화법 또는 쌀 산업 및 소비자 역량강화법(RICE Act) 개정안 (AAES법 일부 개정 포함, 포괄적)
26. 하류 식유산업 규제완화법 개정안
27. 바이오연료법 개정안
28. 사이버보안법
29. 국가 건축법 개정안
30. 중소기업기본법(MSMEs 마그나 카르타) 개정안
31. 해외근로자 재통합법
32. 우수 지방 거버넌스 인증제도(Seal of Good Local Governance) 재구성 법안
33. 디지털 결재법
34. 인프라 및 국가개발 마스터플랜 법안
35. 교실 건설 가속화 프로그램법
36. 공무원의 은행 비밀 포기 의무화 법안
37. 온라인 도박 규제법
38. 재해위험금융보험법
39. 기지전환개발청(BCDA) 강화 법안
40. 대통령 우수 장학 프로그램법
41. 고위 공직자 4촌 이내 친족의 정부계약 참여 제한법
42. 선거에서의 소셜미디어·AI·인터넷 기술의 공정 사용법
43. 이민국 현대화 법안
44. 바랑가이 기본법(Magna Carta for Barangays)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01/702145/ledac-identifies-44-priority-bills-including-general-tax-amnesty-and-amendments-to-bank-secrecy-law/>

8월 공장 출하가격 상승

October 01,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Preliminary data released by the PSA yesterday showed that the Producer Price Index (PPI) for manufacturing returned to positive territory, registering a 0.6 percent growth in August after the 0.1 percent drop in July.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의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 가격 하락세가 둔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PSA가 어제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PPI)는 7월의 0.1% 하락 이후 8월에는 0.6% 상승하며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한 1.3% 하락에서 개선된 수치이기도 하다.

PPI는 기준 기간에 비해 공장 출하가격(factory gate prices)의 평균 변동률을 측정하는 지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PPI 상승률은 0.4%로 나타났다.

[Cont. page 3]

8월 공장 출하가격 상승

[Cont. from page 2]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5년 8월 제조업 부문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연간 성장률 반등은 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제조업 부문의 PPI 연간 성장률 하락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컴퓨터·전자·광학 제품 제조업 부문은 7월 1% 하락에서 8월 0.1% 하락으로 낙폭이 줄었다.

또한 PPI 성장 반등을 견인한 요인으로서는 기본 금속 부문이 7월 0.4% 상승에서 8월 2%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진 것이 꼽혔다.

PSA는 운송 장비 부문의 성장률 하락세가 7월 1.3%에서 8월 0.2%로 둔화된 것 역시 PPI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9개 산업 부문 중 11개 부문은 연간 증가세를 보였고, 8개 부문은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8월에 증가세를 기록한 산업은 코크스 및 정제 석유 제품, 식품, 음료, 화학 및 화학제품, 담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 가죽 및 신발 등 관련 제품, 의류, 섬유,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산업이었다.

반면 감소세를 기록한 산업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전기장비, 전기 이외의 기계 및 장비,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제품, 기본 의약품 및 제약 준비 제품, 목재·대나무·등나무 제품 및 관련 제품, 기타 제조 및 기계 장비 수리·설치업, 제지 및 종이 제품 산업이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0/01/2476527/factory-gate-prices-increase-aug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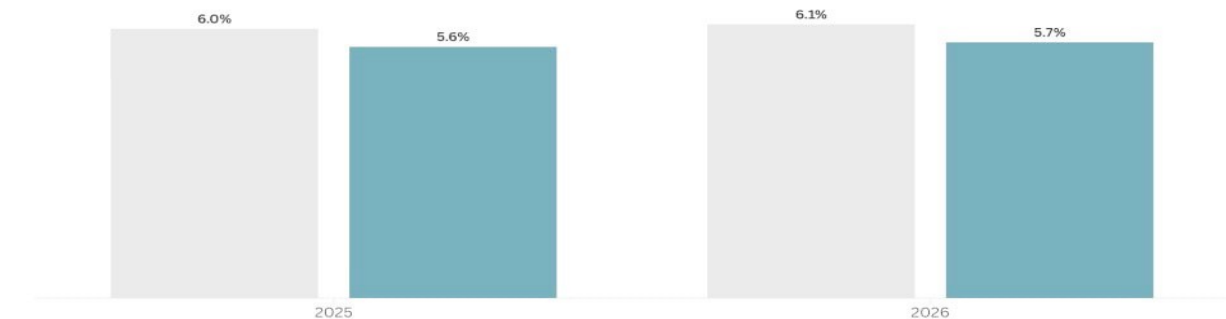
ADB, 2026년 필리핀 성장률 전망 5.7%로 하향...2025년은 5.6% 유지

October 01,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Philippines

GDP GROWTH FORECAST

■ April Forecast ■ September Forecast



ASIAN DEVELOPMENT OUTLOOK SEPTEMBER 2025
www.adb.org/outlook

ADB

#ADO2025

부패 논란, 잠재적 위험 증가 여부 모니터링 중 - ADB 국가 담당 이사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6년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5.7%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ADB가 9월에 발표한 최신 *아시아경제전망(ADO)*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 경제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성장 전망은 5.6%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Cont. page 4]

ADB, 2026년 필리핀 성장률 전망 5.7%로 하향...2025년은 5.6% 유지

[Cont. from page 3]

동남아시아의 밝은 전망

마닐라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의 밝은 전망지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ADB 필리핀 국가 담당 이사 앤드류 제프리스(Andrew Jeffries)는 “세계적인 교역 및 투자 정책 변화, 그리고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필리핀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을 높이고 있지만, 강한 국내 수요가 성장을 떠받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제 확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물가상승률 1.8%로 완화 전망

ADB는 2025년 필리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6년에는 3%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는 2~4%이다.

ADB는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둔화와 쌀 등 국내 주요 식량 공급 개선으로 인한 낮은 식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완화된 물가 전망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하지만, 악천후와 기후 충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필리핀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따른 외부 역풍, ▮ 글로벌 경제정책의 추가적 변화, ▮ 무역 장벽 확대 등을 꼽으며, 이는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인 투자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정부 투자 확대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부 역풍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2025년 2분기 기업 신뢰도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기업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

ADB는 정부가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6% 수준에서 인프라 지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B 보고서는 “이번 달 법으로 제정된 신속·개정된 토지수용법(Accelerated and Reformed Right-of-Way Act)은 정부 및 민관협력(PPP) 사업의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새로운 법은 ADB가 자금을 지원하는 말로스-클락 철도사업과 남부 통근 철도사업 등 정부의 주요 사업들에 혜택을 줄 것이며, 이들 사업은 메트로 마닐라와 루손 북부 및 남부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 아울러 완공 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탄-카비테 연계교량 프로젝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B는 또한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의 송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민간소비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소비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부패 논란

앤드류 제프리스(Andrew Jeffries) 필리핀 ADB 국가 담당 이사는 현재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논란이 향후 투자 심리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은행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GDP의 약 60%가 국내 소비 및 기타 요인과 저물가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GDP 전망치를 낮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높아진 위험 요인이다. 올해 12월 발표할 업데이트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이사는 ADB가 부패 문제와 공공 재정 관리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차입국의 재정 관리 역량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철저한 실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5]

ADB, 2026년 필리핀 성장률 전망 5.7%로 하향...2025년은 5.6% 유지

[Cont. from page 4]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제프리스 이사는 ADB가 세계은행 그룹과 협약을 맺어, 의심스러운 활동에 연루된 계약업체에 대해 교차 제재(cross-debarment)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필리핀 인프라 사업 관련 의혹에 연루된 계약업체들도 정부가 먼저 제재를 가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adb-trims-ph-2026-growth-forecast-to-5-7-keeps-2025-at-5-6-2/>

재정 지출 대폭 삭감 없이는 부가세 10% 인하 불가능

September 29, 2025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현재 12%인 부가가치세(VAT)를 10%로 낮출 경우 정부의 재정 통합(fiscal consolidation)에 차질이 생기며, 전체 세수는 연간 평균 3,300억 페소, 즉 국내 경제 규모의 약 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차관 카를로 페르민 S. 아드리아노(Karlo Fermin S. Adriano)는 지난주 열린 필리핀 조세아카데미(PTA) 총회에서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VAT를 12%에서 10%로 인하할 경우 GDP의 약 1%, 즉 연간 평균 3,300억 페소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GDP 대비 약 6.3%의 재정적자로 이어져, 정부의 2023~2027년 재정 프로그램 목표치인 5.3%를 상회하고, 지난해 기록한 5.6%보다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아드리아노 차관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5.5%로 설정했다라도 VAT를 10%로 인하할 경우 적자가 6.5%로 치솟게 된다. 이는 VAT가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나온 경고다.

아드리아노는 “따라서 우리는 재정 통합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우리의 재정적자는 5.7%에 불과했는데, 재정 통합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자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하게 되어 국가 부채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연간 약 3,300억 페소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매년 비슷한 규모의 정부 프로그램 축소를 의미한다고 아드리아노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약 20년 전 VAT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DSP)에 부과되는 12% VAT는 연간 약 350억 페소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드리아노는 이 수치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12% 소비세 부과로 최근 3개월 동안 총 28억 페소의 세수가 징수되었으며, 이는 기업 간 거래(B2B)와 소비자 거래(B2C)를 모두 포함한다.

아드리아노는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세수 확대가 아니라 국내 DSP와 해외 DSP 간의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와 같은 DSP 구독 서비스는 주로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SP 구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나 어린이 아니다”라고 아드리아노는 말했다.

또한 그는 VAT가 역진적이라는 가정을 반박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VAT 제도는 ‘역진적(regressive)’이 아니라 ‘정상(normal)’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Department of Finance building in Manila (DOF photo)

[Cont. page 6]

재정 지출 대폭 삭감 없이는 부가세 10% 인하 불가능

[Cont. from page 5]

아드리아노 차관은 식품 등과 같은 면세 품목이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출 대부분이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VAT 인하는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며, 이들의 구매는 대부분 VAT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딜로이트 필리핀의 비즈니스 세제 담당 리더 세렌 M. 퀴존은 “VAT 인하는 많은 필리핀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상품 가격을 낮추고 가게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세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다른 세수원을 찾아야 하거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VAT 면세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3일 레안드로 레비스테(Leandro Leviste) 바탕가스주 제1지구 하원의원은 VAT를 10%로 낮추는 내용의 하원 법안 제4302호를 발의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을 제20대 의회의 하원 세제소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의 우선 심사 안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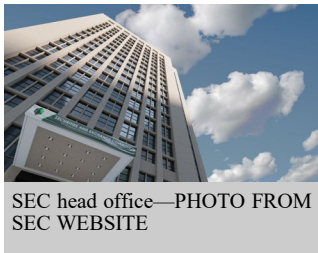
레비스테 의원은 VAT 인하 제안으로 인해 정부 세수가 약 2,000억 페소, 가구당 연간 약 7,000페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전할지는 추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다음 회의 전까지는 여러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VAT 인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09/29/vat-reduction-to-10-not-doable-without-deep-spending-cuts>

SEC, 사외이사 임기 9년 엄격 제한 추진

October 02, 2025 | Meg J. Adonis | Philippine Daily Inquirer



SEC head office—PHOTO FROM SEC WEBSITE

마닐라, 필리핀 — 독립 이사들은 앞으로 9년을 초과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임기 제한을 규정하는 회람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SEC 프랜시스 림 위원장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임기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진정하고 의미 있는 독립 이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독립 이사들은 3년의 고정 임기로 선출되며, 이는 그들의 임기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독립 이사들이 갑작스러운 해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림 위원장은 필리핀 주주협회(Sharehold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의 디지털 도서관 출범식 행사에서 “독립 이사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이 되도록, 3년의 임기 보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일단 선출되면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허점

다만, 림 위원장은 독립 이사가 최대 3차례 연속 임기, 즉 총 9년까지만 선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재선출이 금지된다.

현행 규정상 독립 이사는 1년 임기로만 선출되며, 최대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기업은 예외 인가(exemptive relief)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규칙이 승인되면 임기 제한은 엄격히 적용되며, SEC는 더 이상 연장 승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림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번 회람은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2026년에 9년째를 맞는 독립 이사는 재선출될 수 없고, 임기도 연장되지 않는다.

[Cont. page 7]

SEC, 사외이사 임기 9년 업격 제한 추진

[Cont. from page 6]

가능한 제재

3년 임기 보장과 9년 임기 제한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10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초안 회람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럼 위원장은 앞서, 한 기업에서 임기가 만료된 독립 이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옮겨 전문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리더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50197/sec-seeks-strict-9-year-limit-for-independent-directors](https://business.inquirer.net/550197/sec-seeks-strict-9-year-limit-for-independent-directors)

반도체 산업 협의회, 5개년 인력 개발 계획 발표

October 01,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반도체·전자산업 자문위원회(SEIAC)는 향후 5년간의 인력 개발 계획이 학교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인재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양헬 이그나시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실 차관은 성명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투자가 회복력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위원회의 장기 목표가 국내 인재를 육성하고 필리핀인이 자국 내에서 경력을 쌓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개발 계획에는 글로벌 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단계적(ladderized) 프로그램과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s)을 포함한 유연한 학습 경로가 담겨 있다.

위원회는 두 번째 회의에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도 논의했다.

SEIAC는 클락(Clark)의 시범 부지를 뒤이어 전략적 경제구역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력·수자원·물류 분야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인프라 진단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뉴 클락 시티(New Clark City)의 시범 사업은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간소화, 기업 활동 편의성 제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홍보 노력도 검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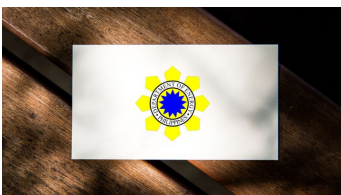
위원회는 필리핀 대표단을 이끌고 2025년 SEMICON Europa에 참가하여 “전통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유럽의 대체 공급업체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필리핀을 반도체 및 전자 제조·혁신의 경쟁력 있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부 기관들의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0/01/702362/chip-industry-council-unveils-five-year-workforce-devt-plan/](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10/01/702362/chip-industry-council-unveils-five-year-workforce-devt-plan/)

에너지부, 석유·가스 탐사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수당’ 제공

September 30, 2025 | Lenie Lectura | BusinessMirror



석유 업스트림 산업에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에너지부(DOE)는 한계 석유 광구, 신규 및 미개척 지역 운영자들에게 ‘특별 수당(special allowance)’을 제공할 예정이다.

DOE 세런 가린 장관이 9월 23일에 서명한 부령 제2025-3-17호에 따르면, 특별 수당은 국가에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유 탐사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민간 기업에도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이는 필리핀의 서비스 계약을 투자 유치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석유·가스 탐사의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 page 8]

에너지부, 석유·가스 탐사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수당’ 제공

[Cont. from page 7]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현재 국내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상황은 석유 시추 사업에 수반되는 높은 위험성 때문에 투자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더 많은 탐사 및 생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탐사 활동을 촉진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발견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계약자들에게 개선된 재정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간 운영비용이 비용 회수 한도인 70%를 초과할 경우, 한계적 석유 사업에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DOE는 운영비용을 석유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정의하되, 개발 및 탐사 비용과 자본 지출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OE는 “뉴 플레이(new plays)”를 생산성이 있는 분지에서 아직 시험되지 않은 지질학적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이 범주에서는 최초 상업 개발에 대해서만 총수익의 5%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동일한 수당은 DOE가 “유익미한 생산 활동이 없는 분지”로 정의하는 프런티어 지역에도 적용된다.

또한, 인도 시장으로부터 200km 이상 400km 미만 떨어진 외곽 지역의 가스 개발에는 2.5%의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이 수당은 400km 이상 800km 미만 지역에서는 5%로, 800km 이상 지역에서는 7.5%로 증가한다.

신규 플레이, 프런티어, 또는 외곽 지역에서 토종 가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총수익의 30%에 해당하는 특별 수당이 부여된다.

DOE는 또한 대통령령 87호(PD 87)에 따라 부여된 계획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30/doe-grants-special-allowance-to-lure-oil-gas-exploration-firms/>

[UPCOMING EVENT]



The poster features a festive design with a white background, green pine branches, red berries, and gold and silver ornaments. At the top center is the KCCP 30th Anniversary logo, which includes a stylized 'K' and 'C' in blue and red, with '30 YEARS ANNIVERSARY' text. To the right is a Santa Claus head wearing a red hat, with a speech bubble containing the text 'Open for cash & raffle sponsors'. The main text read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 a serif font, followed by 'Christmas Party' in a large, elegant cursive script. Below this, the date and time are listed: 'NOVEMBER 24, 2025 AT 5:30PM'. The venue is 'AYALA BALLROOM, MAKATI SPORTS CLUB'. At the bottom,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Ms. Chi or Ms. Sang at +632-88857342 or at info@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